# ‘삐약이’ 신유빈이 해냈다…한국 여자 탁구 쾌거

## 신유빈·이은혜·전지희, 독일 꺾고 16년만에 동메달
## ‘혼복 동메달’ 신유빈, 32년만에 ‘멀티 메달리스트’

한국 여자탁구가 16년 만의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에 입맞춤했다.

신유빈, 이은혜(이상 대한항공), 전지희(미래에셋증권)로 팀을 꾸린 한국은 10일 프랑스의 사우스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3위 결정전에서 독일을 3-0으로 제압, 동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한국 탁구는 2008년 베이징 대회 동메달 이후 16년 만에 이 종목 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단체전과 여자 단식을 통틀어서도 한국 탁구에 16년 만의 올림픽 메달이다.

앞서 혼합복식에서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함께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신유빈은 두 번째 동메달을 추가하며 ‘멀티 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 탁구가 올림픽에서 멀티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건 김택수(대한탁구협회 부회장)가 남자 단식 동메달과 남자 복식 동메달, 현정화(한국마사회 감독)가 여자 단식 동메달과 여자 복식 동메달을 수확한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32년 만이다.

여자 단식까지 3개 종목에 모두 출전한 신유빈은 대회 개막 첫날부터 폐막 전날까지 거의 매일 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펼친 끝에 값진 성과를 냈다. 15일 동안 14경기를 소화했다.

2011년에 중국에서 귀화해 국내 에이스로 군림해왔으나 올림픽 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던 전지희는 3번째 올림픽 도전에서 생애 첫 메달을 수확했다.

역시 2011년에 중국에서 귀화한 이은혜는 이번이 첫 올림픽 무대다.

여자 대표팀은 2021년 도쿄 대회 여자 단체전 8강에서 독일에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당시 전지희, 신유빈이 대표팀에 있었다.

한국 탁구는 동메달 2개로 이번 대회를 마감했다. 남자 단체전 은메달 1개를 따냈던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최고 성적이다.

한국과 독일 모두 변화 없이 기존 복식조를 내보내며 정면충돌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조’ 신유빈-전지희 조는 ‘중국계 듀오’ 완위안-산샤오나 조를 상대로 첫 두 게임은 수월하게 가져왔지만 이후 두 게임에선 핌플러버를 쓰는 산샤오나의 까다로운 구질에 고전했고, 승부는 5게임으로 치달았다.

일진일퇴의 공방전은 전지희의 날카로운 포핸드와 상대 범실로 11점을 먼저 채운 한국의 3-2(11-6 11-8 8-11 10-12 11-8) 승리로 끝났다.

여자 대표팀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던 이은혜(44위)가 2단식에서 독일의 18세 신예 카우프만(100위)을 3-0(11-8 11-9 11-2)으로 돌려세우면서 한국은 동메달 고지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카우프만은 부상을 당한 베테랑 한잉 대신 갑작스럽게 독일 대표팀에 합류했으나 예상 밖으로 좋은 기량을 과시하며 ‘단식 에이스’로 활약한 기대주다.

하지만 유럽 선수에게 부족함이 없는 파워를 장착한 데다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앞서는 이은혜에겐 역부족이었다.

3단식은 31세 전지희(15위), 41세 산샤오나(40위) 두 베테랑 간의 대결이었다.

전지희는 흐름을 거의 내주지 않으며 경기를 끌고 갔다.

산샤오나와의 랭킹 격차(25계단)를 올림픽 테이블 위에서 한 구 한 구 차분하게 설명해 보였고, 3-0(11-6 11-6 11-6) 완승으로 한국의 승리를 매조졌다.

이어진 결승전에선 중국이 일본을 3-0으로 완파하고 사상 첫 탁구 금메달 5개 ‘싹쓸이’의 대업을 완성했다.

중국은 지난달 30일 왕추친-쑨잉사 조가 혼성 단체전, 이달 3일 천멍이 여자 단식, 4일 판전둥이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가져갔다.

이어 9일과 이날 차례로 열린 남녀 단체전에서도 시상대 정상을 점령했다.

중국은 단체전 남녀 동반 5연패를 이뤄냈다. 단체전이 베이징 대회에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이 종목 금메달을 빼앗기지 않았다.

중국은 혼합복식이 도입돼 탁구 금메달이 5개로 늘어난 첫 대회였던 도쿄 대회에서는 혼합복식 금메달을 일본에 내준 바 있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 신유빈과 전지희가 첫 번째 게임인 복식에서 독일 산샤오나와 완위안에게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웅태·우상혁 ‘미완으로 끝난 올림픽’

## 근대 5종 전웅태 6위·높이뛰기 우상혁 7위 그쳐

도쿄를 놀라게 했던 근대 5종 전웅태와 높이뛰기 우상혁이 파리에서는 메달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웅태(광주시청)가 11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근대5종 남자부 결승에서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런(육상+사격) 합계 1526점을 획득하면서 6위를 기록했다.

전웅태는 코로나 19 여파로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근대 5종 사상 첫 한국의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전웅태는 이번 대회에서는 시상대 더 높은 자리에 도전했지만 사격 부진으로 메달을 명중시키지 못했다.

8일 진행된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235점을 기록하면서 도쿄 대회(9위)보다 높은 4위에 자리했지만 전웅태에게는 ‘운수 나쁜 날’이 됐다.

이날 첫 경기인 승마에서 5번째 장애물에 걸린 말이 코스를 이탈하면서 시간이 초과돼 그 여파로 13점 감점을 받았다.

이후 펜싱 랭킹 라운드 최하위 2명부터 ‘서바이벌’ 방식으로 올라가며 추가 점수를 노리는 보너스 라운드에서 6점을 더한 전웅태는 수영에서는 전체 7위에 해당하는 1분 59초 41의 기록으로 312점을 추가했다.

3위(840점)를 유지한 전웅태는 마지막 레이저런에서 성적에 따라 1위 아메드 엘겐디(이집트) 보다 17초 늦게 출발선을 나섰다.

초반 2위를 유지했던 전웅태는 사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첫 번째 사격 지점에서 연거푸 실수가 나오며 25초를 쓴 전웅태는 세 번째 사격 지점에서 일본의 사토 다이슈에 순위를 내어줬고 네 번째 사격 이후 이탈리아의 말란에 밀리며 2700m을 4위로 통과했다.

전웅태는 결승선 직전 최종 6위로 밀려나며 2회 연속 올림픽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함께 출전한 서창완(국군체육부대)은 1520점을 기록하며 전웅태에 이어 7위로 경기를 마쳤다.

서창완은 첫 경기 승마에서 장애물을 떨어뜨리며 14점 감점으로 286점을 획득했다.

펜싱 보너스 라운드에서 4점을 더한 서창완은 수영에서 2분 01초 53의 기록으로 307점을 추가했다.

7위를 기록하고 있던 서창완은 레이저 런에서 성적에 따라 35초 늦게 출발선을 나선 뒤 최종 순위 7위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쳤다.

이번 대회 금메달은 도쿄 대회 은메달리스트였던 이집트의 엘겐디가 세계 신기록인 합계 1555점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목에 걸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은 이번 대회에서는 아쉬움 가득한 미소를 남겼다.

그는 11일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27로 7위에 머물렀다.

우상혁은 2021년에 열린 도쿄 대회에서 2m35를 넘어 4위에 오르며 한국 육상에 새 역사를 쓰면서, 세계적인 점퍼로 도약했다.

이후 2022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m34), 실외 세계선수권 2위(2m35), 2023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2m35) 을 차지했지만 이날 2m31을 넘지 못하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2m31 3차 시기에서도 바를 건드린 우상혁은 잠시 얼굴을 가리고 엎드린 뒤 곧바로 관중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매트에서 내려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해미시 커(뉴질랜드)가 2m36을 넘으면서 우승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농구 남자부 결승전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 선수들이 성조기를 두르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드림팀’ 미국 농구 금메달

## 프랑스 꺾고 올림픽 5연패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올림픽 5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미국은 1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농구 남자부 결승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98-87로 물리쳤다.

이로써 미국은 2008년 베이징부터 이번 대회까지 올림픽 5연패를 달성했다.

올림픽에서 연승 행진은 지난 2021년 도쿄 대회 조별리그 1차전 프랑스와 경기에서 76-83으로 패한 이후 최근 11연승이다.

이틀 전 세르비아와 4강전에서 한때 17점 차로 끌려다니는 등 고전했던 미국은 이날 2쿼터 중반 데빈 부커의 3점포로 29-27 리드를 잡은 이후로는 계속 앞서 나가며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을 49-41로 앞섰으며 3쿼터에는 10점 차 이상 간격을 벌리고 금메달 분위기를 띄웠다.

4쿼터 막판에는 스테픈 커리가 고비마다 3점포를 적중해 프랑스의 추격을 따돌렸다.

커리는 87-81로 앞선 종료 1분 52초를 남기고 3점을 터뜨렸다. 프랑스가 니콜라 바툼의 3점포로 다시 6점 차를 만들자 커리는 다시 공격 제한 시간에 쫓겨 던진 3점슛으로 응수했다.

프랑스가 2023-2024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신인왕 빅토르 웸반야마의 3점슛으로 종료 55초를 남기고 87-93으로 추격했을 때도 커리가 다시 종료 35초 전 승부에 쐐기를 박는 3점슛을 적중했다.

미국은 커리가 3점슛 8개로 24점을 넣었고 케빈 듀랜트와 부커가 15점씩 기록했다. 르브론 제임스는 14점, 10어시스트, 6리바운드의 성적을 냈다. 미국 듀랜트는 최근 4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올림픽 남자 농구 사상 최초로 4회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됐다.

제임스는 2004년 아테네 대회 동메달과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에 이어 개인 통산 네 번째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021년 결승에서 미국에 패한 프랑스는 홈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웸반야마(26점·7리바운드)를 앞세워 설욕을 노렸으나 2회 연속 은메달에 만족하게 됐다. /연합뉴스

# ‘올림픽 금’ 리디아 고 ‘겹경사’

## LPGA 명예의 전당 최연소 가입
## 양희영 4위…김효주·고진영 25위

교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사진)가 2024 파리 올림픽 골프 여자부 금메달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11일 프랑스 파리 인근 기앙쿠르의 르골프 나쇼날(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8언더파 280타의 에스터 헨젤라이트(독일)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리디아 고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은메달, 2021년 도쿄 대회 동메달에 이어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메달을 2개 따낸 여자 골프 선수도 리디아 고가 유일했고, 이번에 자신의 통산 메달 수를 3개로 늘렸다.

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 전당 가입 조건에 모자랐던 포인트 1점을 이번 대회 금메달로 채우면서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1997년 4월생인 리디아 고는 LPGA 투어 명예의 전당에 최연소 가입 기록(27세 4개월)도 세우게 됐다. 종전 기록은 2016년 박인비의 27세 10개월이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양희영이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 가장 높은 순위인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동메달은 7언더파의 린시위(중국)가 가져갔다.

양희영은 첫 올림픽 출전이었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공동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시도한 6.6m 거리 이글 퍼트가 들어갔더라면 린시위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를 수 있었으나 약 50㎝ 차이로 빗나갔다.

김효주와 고진영은 나란히 이븐파 288타, 공동 25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여자 골프는 2016년 리우 대회 박인비가 금메달을 따냈고, 2021년 도쿄와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연합뉴스